

광주·전남 상장사, 원자재값 급등에 수지 악화

34곳 상반기 매출 35조9313억 전년대비 9.5% 늘었지만 영업손실 14조8630억 달해 화학제품·건설업종 타격 커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 주식 상장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여파로 매출이 늘었음에도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2022년 상반기 결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장기업 34개사의 매출액은 35조931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2조8031억원)보다 9.5%(3조1282억원) 증가했다.

광주사무소는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37개사 가운데 코스피 14개사·코스닥 20개사 등 34개사 결산실적을 분석했다.

분석에서 제외된 법인은 금융업종인 우리금융과 분할·합병한 금호에이치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한 제이웨이 등 3곳이다.

시장별로 보면 올 상반기 상장사들의 매출액은 코스피에서 10.0% 증가하고 코스닥은 3.9%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전국 코스피 상장기업 매출 평균 증가율 25.1%(연결 기준·603개사)와 코스닥 증가율 22.3%(연결·1063개사)를 크게 밑돌았다.

지역 상장사들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적자 폭이 커졌는데, 전국 상장사들은 전년보다 이익이 늘었다.

올해 지역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코스피 부문에서 14조8577억원, 코스닥에서 53억원 적자를 내는 등 14조86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순이익 부문에서도 코스피 10조6731억원 적자를 보고, 코스닥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2억원에 그쳤다.

반면 전국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전년보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16.7% 증가했다. 순이익은 코스피 0.67%·코스닥 5.6% 증가했다.

지역 상장기업들의 매출이 늘었음에도 적자 폭이 확대된 건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화학제품과 건설업종 등의 타격이 컸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전체 상장사 매출액의 85.9%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매출액은 전년 4조 5427억원에서 올해 5조598억원으로, 11.4%(5172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 상반기 매출은 30조8715억원으로, 지난해(28조2604억원)보다 9.2%(2조6111억원) 늘었다.

하지만 국제 유가 급등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15조51억원)과 순이익(-10조 6731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전력을 제외한 지역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420억원으로, 전년(2546억원)보다 44.2%(-1126억원) 급감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2267억원에서 올해 1377억원으로, 39.3%(-891억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 34개사 가운데 적자 전환한 기업은 코스피 1개사(대우플러스)와 코스닥 5개사(고려시멘트·대한그린파워·상상인인더스트리·오이솔루션·우리로)이다.

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기업은 총 20개사로, 다스코(코스피)와 피피아이(코스닥) 등 2개사는 흑자

전환했다.

아울러 지역 상장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등을 반영한 경영지표는 전년보다 크게 악화했다.

광주·전남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매출액에 대한 영업 이익의 비율)은 올 상반기 기준 -41.34%로, 전년(-5.34%)보다 36.0%포인트나 떨어졌다.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지난해 -3.0%에서 올해 -29.70%로, 1년 새 26.7%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상장법인들의 부채총계는 91조1736억원으로, 지난해 말(74조4030억원)보다 22.5%(16조 7707억원)이나 뛰었다.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213.2%로, 전년 말(139.3%)보다 73.9%포인트나 급증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10조원 넘는 순손실을 보면서 지역 코스피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가 확대됐다"며 "코스닥 시장은 위니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오이솔루션, 대한그린파워, 고려시멘트의 적자 전환 등으로 순이익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외주식 위탁운용사 5곳 사학연금, 선정 절차 돌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30일부터 '해외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운용사 선정은 총 2조원 규모이다. 총 5개 국내 운용사를 선정하며, 오는 9월8일까지 운용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다.

심사는 1차 정량평가 및 위탁운용사 현장실사, 2차 정성평가(PT) 등을 진행하며, 다음 달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의 자격을 갖춘 운용사이다. 해외주식형 펀드 비중이 60% 이상이고 재간접펀드의 수탁고(설정액) 100억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사학연금은 정량평가에서 재무안정성, 운용성과 이외에도 ESG 추진 활동에 대한 항목을 평가할 방침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 공지사항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kof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이번 신규 운용사 선정에서 역량 있는 운용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국 노포 맛집서 '보해 소주' 리브콜

서울·대구·대전 등 유명 식당서 입점 문의 잇따라

'소금 소주'로 알려진 보해양조의 소주 '보해'가 수십년 전통을 잇는 전국 노포(老舖)들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다.

30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보해소주는 최근 수도권을 포함해 대구, 대전 등 전국 노포들로부터 입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포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게'라는 뜻으로, 오랜 세월과 가게에 다녀간 수많은 손님이 그 맛을 보장한다.

현재 보해 소주는 서울 성동구의 유명 생생김밥 전문 '행복한 식당'과 영등포구에서 3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중앙참치전문', 대구 계명대 인근 시장 맛집 '전래순대국밥', 대전 유명 실내포차 '금복집'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보해소주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안데스 레이크 솔트, 신안 토판염 등 세계 3대 소금을 넣어 쓴맛을 크게 줄였다.

이른바 '소금 제조법'(솔트 레시피)으로 깔끔한 뒷맛을 내면서 노포식당 대표 음식들과 좋은 궁합을 보인다.

보해소주는 지난해 7월 출시하고 1년 만에 누적 판매량이 200만병을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지 않아도 맛의 본질에 집중한 것이 비결로 꼽히고 있다.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노포에서 보해소주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본연의 맛과 개성을 유지해서 인기를 얻는 노포처럼 보해소주 역시 제품 자체에 집중한 결과 소비자들이 먼저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보해소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국의 노포들에 입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해소주는 보해양조 역대 신제품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출시 첫 달 약 1만 병대였던 판매량은 5개월 만에 12만병대로 10배 이상 급증,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출시 첫 달보다 20배 넘게 판매되며 역대 보해양조 신제품 중에서 최다치를 넘어섰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공공문서 발급서 제출까지 '전자문서지갑'으로

광주은행, 등·초본 등 18종 서비스

광주은행이 각종 공공문서를 모바일 앱을 통해 열람·발급·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는 개인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등 총 18종의 공공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발급하고, 제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공공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열람용 문서를 공유하거나 사본을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기업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에서 사업자유 금융인증서를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존 금융인증서는 개인뱅킹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고, 개인사업자·법인고객은 제외됐었다.

금융인증서는 기존의 공동인증서와 달리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6자리 숫자 간편 비밀번호(PIN)를 이용하고, 유효기간도 최대 3년으로 인증서 갱신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백의성 광주은행 디지털채널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 서비스로 고객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디지털 시대에 맞춰 고객 요구 충족과 편의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열골

"중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종합지원 할 것"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광주·전남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다른 부처와 자치단체, 관계기관의 지원 정보를 망라해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30일 신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부임한 이현조(54·사진) 청장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신임 청장으로 취임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청장은 영암 출생으로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소기업청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장, 경영판로국 공공구



매판로과장을 거쳐 경기 지방중소기업청장청장 지원과장, 창업진흥정책관 창업정책총괄과장,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확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 청장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관련 대출을 담당하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에게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의지하는 바가 크므로 우리 가족과 친구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자"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CNN어패럴, 롯데백화점서 만나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6층 아웃도어 매장에 새로 입점한 'CNN어패럴'에서 가을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31일까지 일부 봄·여름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구매 금액별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수출상담회 개최

광산업진흥회 24개국 바이어 상담

한국광산업진흥회는 31일까지 이틀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2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국내 광융합산업기업 64개사 중 광융합조명·광통신·광부품·광에너지 분야에 30개사가 광융합산업신기술 제품을 전시해 24개국 150여명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흥회에서 최근 3년간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만나 관리한 광융합분야 실질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를 대거 초청한다는 점에서 국내기업 간 수요 맞춤형 매칭이 기대된다.

이밖에 진흥회는 베트남 하노이시와 베트남 시장 시장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 현지 정부·기관과의 협력 및 현지 합작법인 설립과 해외사법설치 지원 등 향후 국내 광융합산업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진흥회가 계약성사에 따라 해외바이어 왕복 항공료 최대 70%

와 숙박 2일 등 초청 경비를 지원하고, 원활한 수출상담을 위한 전문통역도 제공한다.

정철동 진흥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광융합신기술 및 우수제품을 선보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광융합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23-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2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에도 20개국 150명의 이상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광융합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0.93(+24.04)
↑ 코스닥	797.02(+17.13)
↓ 금리(국고채 3년)	3.642(-0.011)
↓ 환율(USD)	1346.70(-3.70)